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 버마 불탑 모델로 불교 야학 열어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말해지듯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5·18 광주사태 발발과 함께 데모대에 대한 검거력이 내리자 그는 문경 김룡사에 피신했다가 다시 상경한다. 그는 그제서야 대불련을 찾았다. 1970년대 중반 활발하게 움직였던 민중불교운동의 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제도권 내에 들기 위해 대불련 의장에 출마했다. 이희선은 회장에 출마했고 둘은 러닝메이트였다.

"자기의 주의·주장을 제대로 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 선배와 지도교수와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통제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를 하게 되죠. 출마를 하는데 저는 의장에 당선 됐어요 다시, 회장을 했기 때문에 회장은 다시 못나오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의장에 당선됐는데 이희선 분이 회장에 그 고대 다니는 최주선 군에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당선 되자마자 바로 (의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최연은 민중불교운동 기조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희선이 당선되지 못하자 사퇴

하였다. 민중불교운동의 기치를 들지 못했지만 최연은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으로 영입한다. 그러나 영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급진 인사인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의 영입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가 많았다. 여익구는 대불련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최연 자신의 후배인 중앙대생과 동국대생들이 반대했다. 설득에 설득이 이어졌고 어렵게 여익구 선생을 모셨다. 동시에 최연은 대불련을 지원하는 승려단체인 지도법사단이 출범하도록 여익구 선생을 도왔다. 이로써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새로운 기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다른 불교운동에 눈을 돌렸다. 이른바 불교야학운동이다.

"지도법사단 그 때 만들고 하다가 그거는 하다가 이거보다는 좀 더 진도 나가야겠다. (1981년 82년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아 아니다 해서 좀 더 급진적인, 범우 스님하고 나하고 묘각사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야학연합회를 만들어서 전국 조직하고 그 체계피복회 그 노동자 있잖아요. 노동야학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야학이 시작되면서 발간한 <청년여래>.

그 당시에 대불련 중에서 좀 우수한 인력들 1학년 애들을 교사로 데리고 가서 의식하 교육시켜서 개들이 인제 노동야학의 교사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묘각사 하나 만들고 전국에 다섯 개 만들다가 세 개

까지 만들다가 1년 6개월만에 그냥 조직사업으로 들어가 그게 불교야학 연합회 사건인데 사건명으로 '사원화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묘각사는 현재 종로구 송인동에 위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관음종에 속해있다. 대불련 선배인 흥과 스님이 후원했고 최연과 범우 스님 등이 활동했다. 정계피복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불교야학을 시작한 것이다. 그 운동의 이론적인 근거는 버마(미얀마)의 불탑이다. 불탑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소수자나 낮은 계급의 노동자들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모델을 가져온 것이다. 야학 선생의 모인인 정법대학생회가 결성되었고, 야학 이름은 '여래사(如來使)야학'으로 명명되었다. 여래사의 부름을 받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래사야학을 졸업한 노동자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묘각사 야학운동 실체를 자백했다. 야학을 주도했던 최연과 범우 스님 등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 들어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영화 '파피씨네 펭귄들'

## 펭귄이 찾아준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설득의 왕 파피씨(짐케리)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0점 자리 아빠다. 아이들 생일, 축구시합,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내와는 이혼하고 아이들과는 격주로 주말에 만나는 신세가 된다. 어느 날 남에서의 지리학을 연구하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배달된다는 연락을 받는다. 파피씨의 뉴욕 고급 아파트에 배달된 것은 다름 아닌 펭귄 6마리.

파피씨는 시끄럽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펭귄들에 시달리다가 아들 생일을 또 잊어버렸다. 주말에 문밖에서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펭귄을 선물로 오해하자 어쩔 수 없이 펭귄을 집에서 키우기로 약속한다.

영화는 파피씨와 아이들이 펭귄을 키우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렸다. 파피씨는 자신이 애써 숨겨왔던 부인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아이들 또한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펭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의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내용이 다.

영화는 이미 조금은 뻔한 결말이 예상된다. 펭귄은 분명히 일상생활을 어지럽히는 난제들이고 파피씨네 가족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자 선물이다. 6마리 펭귄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계속 일에만 매달렸을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엄마는 이혼 후 만난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와 아프리카로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떠났을 것이다.

모두가 펭귄 덕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펭귄은 계기만 만들어줬을 뿐 본래 내재돼있던 것들이 표출된 것뿐이다. 화가 나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화해하면 된다. 화해를 결심하

는 계기로 펭귄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면, 어서 상대에게 달려가 진심된 마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택배로 배달될 펭귄은 없으니.

선사들이 강조하듯 영화 '파피씨네 펭귄들'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강조 한다. 주인공 파피씨처럼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내일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피씨네로 배달된 펭귄은

현실 속에서는 고난·역경

갑자기 닥쳐온 불행책이라도

슬기롭게 맞이하면 행복이 된다

파피씨와 그의 아내는 연애시절 낡은 스케이트를 몰래 훔쳐 뒀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데이트를 추억하며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데이트가 소박했듯이 우리도 어머니가 해준 구수한 된장찌개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한다.

당신의 최고의 데이트는 무엇인가? 여자 친구가 싸준 영성찬 열구리 터진 김밥은 아니었는지. 너무 추워서 두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던 그때는 아니었는지. 추억이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행복했기 때문에 추억하는 것이다. 행복은 성공을 거둔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파피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6마리 펭귄과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화를 참는 수행했던 제석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마질다라 왕이 이끄는 아수라 군대는 제석천의 군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아수라 군대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밀린 제석천의 군대는 결국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제석천의 군대가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본 비마질다라 왕은 드디어 자신이 도리천을 두고 계속되어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자비심이 전쟁의 승패를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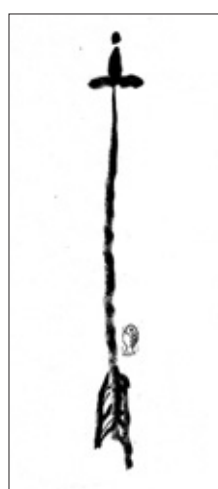
제석천의 군대는 전속력으로 후퇴를 했다. 제석천이 타고 있는 수레는 추적을 피해 숲으로 돌진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는 넓은 길이 없었고 수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수레의 뒤를 따라 영망진장인 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는 제석천의 군대는 패색이 짙었다.

바로 그 때 제석천은 공중으로부터 아귀 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두

마리의 붉은 말을 멈추게 하고 나무들을 확인했다. 커다란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금시조 두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이를 본 제석천은 아귀 새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수라의 군대가 숲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제석천의 군대는 다시 숲 밖으로 나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아수라의 군대를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두 마리 아귀 새의 생명과 죽음을 맞바꾼 것이다.

재미있게도 싸움은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나게 추적을 하던 아수라 군은 숲속에서 갑자기 제석천의 군대가 방향을 바꿔 마주 달려오는 형세를 취하자 당황하고 말았다. 전쟁에 능했던 그들은 제석천의 군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 하고 도망치는 시늉을 하며 자신들을 숲속까지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제석천의 군대가 방향을 바꾼 숲속에 뭔가 감춰둔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반대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뭔가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치다보니 아수라의 군대는 졸지에 대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비마질다라 왕은 군대가 돌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기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었다. 제석천의 군사를 피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군대에 떠밀려 비마질다라 왕 또한 쫓기듯 달리다 그만 수미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전쟁 삽화=김영수

지혜로운 인욕 수행을 하다 도리천의 주인 자리를 놓고 수시로 다투던 제석천과 아수라의 대결은 이 전쟁으로

일단락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천왕은 제석천의 명에 따라 비마질다라 왕을 절대 풀어서 주지 않는 다섯 가지 포승으로 꽂고 묶어서 천궁으로 데려왔다. 비마질다라 왕은 제석천의 얼굴을 보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석천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욕설을 들을 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제석천의 마부가 무엇이 두려워 비마질다라 왕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제석천은 두렵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마질다라 왕의 욕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인욕, 즉 화를 참는 수행을 실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낼 줄 아는 이라고 말하였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500질 한정판



- 01. 화엄경 김지건 역/12,000원
-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 09. 과거현재인과경 해원 역/10,000원
-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 15. 범구경 석지현 역/9,000원
-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 22. 해심밀경 모주 역/10,000원